
2021년 제18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4. 30. ~ 5. 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5. 1.	시청률	0.050

【총 평】

‘시인 아내와 가수 남편, 사는 동안 꽃처럼’편은 16년 전 자동차엔지니어에서 가수로 전향해 고향집을 주말마다 방문하는 부부의 이야기와 함께 시인이자 시낭송가로 활동하는 아내의 꽃섬 이야기를 소개했다. 100년을 넘긴 시골 고향집은 부모님, 할머니님 세대를 지나온 가족의 3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족의 박물관으로 가꾸며, 고향집 마당에서 채취한 들꽃을 말려 꽃차를 나눠 마시고 음미하며 시를 음유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오래된 물건 속에 깃든 추억, 직접 담근 된장, 구수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부부 모습 등 100여년 고택의 고즈넉함과 평화로움을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특히, 주인공 부부의 42년 결혼 생활과 70년 삶이 묻어난 ‘숫대, 시, 그림, 꽃차, 박물관’ 등이 부귀영화 부럽지 않은 부부의 고향집 터 잡기와 추억의 박물관 짓기를 잘 담아냈고, 소박한 시골생활과 고향살이를 풍성하게 담아냈다.

【구성 및 내용】

시골의 부모님 집을 새롭게 박물관으로 꾸미고 뜰에 꽃도 잔뜩 심어 주말마다 이를 돌보며 사는 부부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꽃만큼이나 꽃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도 무척 정겹게 느껴졌다. 동네 어귀에서 만난 할머니가 일찍 사별한 할아버지를 두고 ‘꽃은 해마다 다시 피는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온다.’고 되뇌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고택에 대한 소개가 애뜻했는데, 7년 전 부모님의 집을 개조해 돌보고 있었고, 그 안에 자리한 옛날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뜰에 가득 핀 꽃과 더불어 100개가 넘는 뒷마당의 장독대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직접 쓰던 밥그릇과 주전자, 찻상, 수저 등 일상적인 물건들이 마치 작품처럼 잘 전시되어 있는 모습도 무척이나 향수를 자극했다. 실제로 이 박물관에 동네 주민들이 오래된 물건도 기증한다고 하는데 몇 년 후 박물관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었다. 시인인 아내가 필명을 본명으로 바꾼 계기와 꽃에 대한 시를 많이 쓰는 이유, 60이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등 시에 대한 이야기에 인생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무척 감동적이었고 공감되었다. 직접 차를 말리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엄청난 양의 꽃차를 손수 만들어 놓았는데, 좀 더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부를 가져다준다는 부영이를 많이 모아 두었지만 언제 부를 가져다줄지는 모른다는 아내의 장난스런 이야기와 함께 ‘부부에게 최고의 부는 사람 복이 아닐는지’라는 내레이션이 무척 센스있게 느껴졌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노래 강사인 남편의 수입이 1년 6개월째 끊겼다고 종종 언급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마저 여유롭게 생각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모습 또한 같은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아내의 시로 꾸민 동네 벽을 걸어가는 뒷모습으로 마무리 했는데, 아내의 자작시 ‘사랑합니다.’까지 어우러져 영화의 한 편처럼 여운을 남겼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5. 1.	시청률	0.003

【총 평】

‘작은 역에 울리는 마지막 경적-경북 경주’편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해온 호계역과 불국사역이 신경주역 신설에 따라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게 된 사연을 소재로 추억과 아쉬움을 사운드멘터리로 그려냈다. 폐역되는 호계역과 불국사역을 근대문화유산과 철도기념물 차원에서 보존되기를 바라는 역무원과 승객들의 염원이 메시지로 남아 의미 있었다. 기차역이 주는 감성을 승객 인터뷰로 고스란히 전달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승객을 통해 역이 거쳐간 세월과 시간의 무게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차표 구입 모습, 들판을 달리는 열차, 건널목 표정을 비롯해 경적소리, 열차진입 안내방송, 간이역 새소리 등 영상과 사운드가 흡인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1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폐쇄될 예정인 호계역과 불국사역을 소재로 택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사람과 기차가 만나는 곳,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 기차가 다녀간 자리,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의 작은 역들을 찾아 그곳의 이야기와 소리를 담아보았다. 경상북도 경주, 100년 역사의 호계역과 불국사역 풍경을 전했다. 폐역을 앞둔 두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역의 의미를 물어 세월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여행이나 통학을 위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승객들 인터뷰를 통해 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알 수 있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이야기속에 기차역에 담긴 추억이 담겨 있었고, 역을 지키는 역무원과 역장을 통해 일터로써 역의 의미를 표현했다.

특히 풍경이라는 단어에서 자연경관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오늘처럼 사람이 많은 역이라는 지장물, 그리고 기차라는 탈 것도 풍경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예전의 풍경 소리에서는 이발소, 대장간 등의 특정 장소가 소재로 쓰이곤 했다. 장소의 범위를 좁히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소리를 함께 조명하니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적인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작은 기차역을 깨우는 경적소리와 레일을 달리는 기차의 소리, 수학여행을 앞둔 설레임으로 작은 역을 왁자지껄하게 채우던 승객들의 이야기소리까지 사운드멘터리로 잘 전달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호계역은 부산, 울산 등을 거친다. 그런데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진 호계역이 이제는 없어질 예정이다. 이에 주민들도 호계역이 없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전통기와로 꾸며진 불국사역은 1918년 문을 연 후 10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조선시대 전통 기와를 얹은 고풍스러운 역사, 100살을 훌쩍 넘긴 고목이 맞아주며 하루 20번씩 기차가 다닌다. 이곳도 많은 변화의 바람 속에 곧 문을 닫을 예정이다. 불국사역 역장은 15년 전부터 부역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는데, 불국사역이 올해 11월 30일부로 폐선이 되어 아쉬움이 가득하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5. 1.	시청률	0.028

【총 평】

금주의 핫이슈를 다룬 ‘친북’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선언 전후의 달라진 최근 동향과 속사정 등 북한의 현 실정을 세세하게 다루었다. ‘이슈 텔링’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정세를 소재로 북한이 전세계의 핵무기 감축 움직임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이유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묘책이 다뤄져 주목도를 높였다. 특히 북한의 고립 장기화가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하면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도약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제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성 및 내용】

‘친북’은 지난 4월17일 방송에 고난의 행군 선언을 다룬 이후 북한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뤘는데 북·중 무역재개 움직임 등 유의미한 내용이 많았다. 북한에서 제작된 두 가지 유튜브 영상으로 고난의 행군 선언이후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는데 비교가 잘 되었다. 고난의 행군 선언 이전 유튜브 영상에는 음악 감상이나 스포츠 체험기를 들려주었는데, 이후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전의 밝은 분위기, 예능 같은 분위기가 아닌 자력갱생, 흑백영상,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탈출을 감행한 주재 외교관들이 밝힌 입장과 현재 북한 생필품 가격을 공개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또, 북한에서 다시 기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언급과 이에 대비한 인도주의 단체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북·중 국경에서 물류 운송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통일부의 논평을 바탕으로 북중 무역 재개의 가능성을 아울러 언급했다. 북한이 극한의 상황이 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1990년 고난의 행군 이후 남북회담을 통해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은 북한의 개방을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슈 텔링’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한 우리의 정책을 알아보았다. 사드와 함께 북한의 핵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막에 대해 설명해 우리의 안전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안전 대책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핵무기로 인한 대북 제재와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 현실을 전해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은 경제개발이 한국보다 뒤쳐졌고 저비용으로 군사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인 핵을 개발했고, 북·미 핵협상을 통해 한미동맹을 끊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은 고난의 행군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화될 것이고 북·미간 수교,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5. 2.	시청률	0.051

【총 평】

최근 방송된 내용 중 이슈화된 아이টে을 리뷰형식으로 요약 방송해 주목도를 높였다. ‘완치자 두 번 울리는 코로나19 차별’ 편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의 보호문제를 다루었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서는 탄소중립의 극복 과제와 긍정적인 변화 움직임을 소개했다. 또, ‘이달의 한국판 뉴딜-스마트 의료’편은 우리 의료계에 성큼 다가선 한국형 AI의사 닥터 앤서와 스마트 돌봄 로봇 활용 사례를 소개해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과 이에 적응하기 위해 성찰해야 될 점을 제시해 시선을 끌었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 제시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등으로 핵심에 접근한 구성이 설득력과 메시지 전달력을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최근 방송한 PD리포트 이슈 본 프로그램 3편을 정리했는데 완치자를 두 번 울리는 코로나19 차별, 두 번째는 기후 변화의 해답, 탄소중립, 마지막으로 이 달의 뉴딜, 스마트 의료를 주제로 정리했다.

‘완치자 두 번 울리는 코로나19 차별’ 편은 완치 판정을 받고서도 한 때 코로나19 확진 경험자라는 ‘낙인효과’로 냉대 받고 갖가지 불이익에 고통 받는 완치자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대응책을 차례로 짚어본 기획이 탁월했다. 가해자 취급을 받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재검사 할 필요없이 격리해제확인서로 충분하다는 점을 각인시킨 점이 더 이상 피해와 사회 혼란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에 가려 주홍 글씨에 찍힌 완치자 피해 사례를 조명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프로그램 기획이 어젠더 기능과 캠페인 효과를 고양했다.

‘기후변화의 해답, 탄소중립 실현방안은?’편은 탄소중립의 필요성, 극복 방안, 최근의 변화로 리사이클링 전개, 산업계의 저탄소 경영, 탄소저감에 동참하는 아파트 단지의 동향을 설득력 있게 접근한 구성이 돋보였다.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도 상생으로 극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태백시의 사례를 들어 제시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ESG 경영(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은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미국 애플사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화 100%를 달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의 한국판 뉴딜-스마트 의료’편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나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등 의료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온 한국형 AI의사 닥터 앤서의 활약과 요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스마트 돌봄 로봇 활용 사례를 소개해 흡인력을 높였다. 닥터 앤서의 활용 결과 희귀 유전 질환 발견, 암 발견 정확도 향상, 진료비 절감 효과 등이 나타나 스마트 의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로 노인 중증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았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5. 2.	시청률	0.014

【총 평】

‘백신 접종 도우미…전주시 순환버스 운영’편은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 전북 전주시의 순환버스 운송 사업을 소개하였다. 전염 확산을 막고 어르신들의 불편도 돕는 전주시 순환버스 운송 사업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특성을 잘 드러냈다. ‘비 오면 고립되는 마을,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편은 강원도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 소태면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세월교’를 드나들기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7가구만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위급 상황 때는 고립되기 십상인터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지자체 간의 책임 전가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고, 결국 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가 나서서 조정이 이뤄졌다.

【구성 및 내용】

■ ‘백신 접종 도우미…전주시 순환버스 운영’편은 정부의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중인 가운데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주민센터와 연계해 백신 접종센터까지 순환 버스를 연계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진행했다. 특히 안내직원이 버스내에서 접종 방법, 접종 후 이상유무 등 접종에 관한 안내를 했고, 어르신들도 만족도 높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순환버스 38대를 투입해 운영중이다.

■ ‘비 오면 고립되는 마을,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강원도 원주시 세월교는 비가 오면 하천 수면 상승으로 교량 완전히 잠겨 다닐수 없게 된다. 여름에는 교량이 잠겨 주변 옹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겨울엔 교량이 얼어붙어 차량 이동이 위험한 상태이다. 7가구가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원주시와 충주시의 경계로 관할 세월교는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고 거주하는 시민들은 충주시 소태면에 거주하는 충주시민으로 양 지자체 이견으로 서로 민원 처리를 떠넘기고 있었다. 주민들은 민원을 넣었으나, 하결할 관할 지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정역할을 통해 지자체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처리했다. 충주시는 제방도로와 교량을 개선하고, 원주시는 마을 안길과 지방도와 연결된 배수로 정비했다.

‘비 오면 고립되는 마을,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편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질과 무책임함을 잘 보여준 사례였고,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를 잘 드러낸 사례라 씁쓸했다. 특히, 권익위 조사관 “갈등을 화합과 협력이라는 결론으로 내렸다”며 얘기했지만, 권익위가 나서기 전에 지자체 간의 양보와 협력을 우선 했더라면 선진 행정기관, 스스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줄 있었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자아냈다.

프로그램	인터뷰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방송일자	2020. 5. 2.	시청률	0.007

【총 평】

‘몸짓으로 말하는 침묵 속의 발레리나’편은 청각장애인이지만 음악을 보는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인간한계를 뛰어넘은 빛나는 이야기가 소개됐다. 발레리나로서의 우뚝 서기까지 힘겨운 과정과 그녀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장애를 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수어가 아닌 구화로 호흡한 무용수, 경계를 허문 도전, 결혼 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침묵 속의 춤-저는 음악을 봅니다’, ‘구화를 모국어로-춤으로 호흡하다’, ‘경계를 허물다, 소리 없이 더 넓은 세계로’ 등으로 구성해 주인공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잘 드러냈다.

【구성 및 내용】

발레리나 고아라씨는 생후 4개월 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왼쪽 귀를 잃었지만, 엄마의 헌신과 노력 덕에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가 됐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 단독 무대를 펼침은 물론 장애라는 현실을 뛰어 넘은 예술인으로서 경계를 허무는 그녀의 남다른 견뎌냄을 구성력 있게 담아냈다. ‘침묵 속의 춤, 저는 음악을 봅니다’는 청각 장애를 얻은 계기부터 음악을 듣지 않고 무용을 하는 법, 패럴림픽 공연 이야기 등 인생 전반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초반에 대략적으로 잘 다루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발레를 할 수 있게 된 계기와 어머니의 노력이 느껴졌다. 어머니의 헌신도 대단했지만 어린 나이에 장애를 인지하고 그 시련을 이겨낸 주인공의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2018년 평창 패럴림픽 공연 모습이 잠시 공개가 되면서 감동을 더했다.

‘구화를 모국어로, 춤으로 호흡하다’는 장애를 극복하게 된 계기와 발레를 시작하게 된 계기, 어머니의 헌신과 방황을 이겨낸 순간까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상에서 느낀 이질감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대학 생활에 실망하여 바로 몽골로 떠난 이야기며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다시 길을 찾은 경험담 등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했다. 수어를 배우면서 비로소 장애인의 세계에 눈을 뜨고 경계심 또한 사라졌다는 고백이 진솔하게 와 닿았다.

‘경계를 허물다, 소리 없이 더 넓은 세상으로!’는 발레 이외의 기타 활동과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했고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말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기도 했다. 모델로도 활동하고 미인대회도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인생을 살면서 도전을 계속해나가는 모습이 시청자에게도 하나의 자극이 되었을 것 같다. 또 결혼 후 느낀 행복감이나 맨발의 발레리나로 활동하는 이유 등도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다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어서 특별하게 생각됐으며 예술을 통해서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주인공의 의지 또한 무척 의미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다. ‘장애는 극복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라는 말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었고, 힘이 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5. 2.	시청률	0.006

【총 평】

‘정부24 혜택 탐구생활’과 ‘창업자를 위한 패키지 혜택’을 상세하게 소개해 민원인과 예비창업자, 재도전 창업자 등 정책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정부24 혜택 탐구생활’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는 시청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간편한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시행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제도와 공동인증서의 내용을 안내해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정부24 혜택 탐구생활’은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잘 맞는 소재였고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정보였다. ‘예비창업패키지’와 ‘재도전성공패키지’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었다.

【구성 및 내용】

포털 ‘정부24’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2019년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변화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망라해서 소개했다. 다양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민원서비스 혜택 안내했다. 집에서 간편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을 이미지로 제시해 이해하기 쉬웠다. 전자서명법 개정이후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소개했다. 그간 사용이 불편했던 공인인증서를 대신하여 전자상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인증서가 새롭게 등장했다. 공동인증서는 민간 사업자까지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고 비밀번호 설정도 다양화되었다. 기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의 창업 이야기를 소재로 ‘예비창업패키지’로 넘어가 관심을 유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가 악화되자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지난해 대비 4.7%가 증가한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일자리 기근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였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소개했는데 참고할만한 정보였다. 또,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창업으로 ‘물질적 정신적 위기’를 맞이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내용이라 주목받았다. 창업에 재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936명이 재창업에 성공했고 그중 다수가 재창업 이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다시 재기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섬세한 부분이 강조됐다. 예비창업자 4,625명을 대상 창업아이템 순위는 5위는 편의점, 4위는 주류, 3위는 패스트푸드, 2위는 외식업, 1위는 카페와 베이커리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5. 2.	시청률	0.001

【총 평】

‘첨단 기술이 만드는 의료 서비스-스마트 의료’편은 스마트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통해 스마트 의료의 필요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스마트의료 서비스는 국가 건강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궁극적 목적임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스마트 의료에 대해 소개했는데, 미래의 의료현장을 볼 수 있었고, 스마트 의료가 질병의 예방 기능에 집중해 치료비를 줄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해 세계를 주름잡는 의료기기 강국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IT기술과 의료 서비스의 융합이란 무엇이며 AI인공지능 의사의 역할과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전하였다. AI의사는 실제 의사와 협업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찰로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환자를 향한 진료와 간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전망부터 의료기관의 잦은 폐쇄 현상을 다루면서 문제의식을 제기해, 비대면 스마트 의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현실은 의료진 부족 및 의료 공간의 한계성을 드러냈는데, 다가올 미래에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서비스가 적재적소에서 AI와 함께 스마트하게 진료가 이루어질 세상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급격하게 증가할 시점에 와있다. 디지털 기술과 공공의료 빅데이터가 손을 잡게 될 스마트 의료는 결국 약 10%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 의료의 본질이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스마트 의료라는 것이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어 결국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겠다는 편견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AI가 의료 영상 자료에 대해 보조 판독결과를 도왔고,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는 로봇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 의료진은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스마트의료 서비스는 IT기술과 의료 서비스의 융합이라는 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인식체계가 혁신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AI가 의사를 보조하여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의 진료 기록을 판독하여 정확하고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환자와 병원의 비용 절감을 가져와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또, 로봇이 의사의 조정을 통해 수술을 집도하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여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실감나게 하였다.